

地方自治團體의 情報體系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Information Systems of Local Authority

李 恩 宰

(韓國地方行政研究院 首席研究員)

<目 次>

- I. 문제의 제기
- II. 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정보System의
必要性
- III. 정책형성의 System化
- IV. 자치단체 정보체계 활용의 문제점
- V. 자치단체 정책system의 정보정책
- VI. 결 론

I.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지방정부의 주어진 여건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는 날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변화의 주된 내용의 예측은 첫째로 주민의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해 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주민의 복지수요는 점차로 그 요구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각 지방정부간 즉 각 지역간의 경쟁이 촉발됨으로써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경영자적 사고에 입각하여 지방행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¹⁾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비영리 조직이므로 이익·손실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지방정부별로 특정기간중에 어떤 성과 또는 행정수준을 달성했는가 즉 무엇이 어느정도 개선되었는가에 관한 정보의 적절한 정리와 보고가 요구될 것이다. 둘째, 주민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볼때 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의 선출방식에 대한 논란을 시작으로 하여 주민참가의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정활동에 대한 주민통제의 강화가 초래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그들에게 유용하면서도 이해하기 용이한 지방행정관련 정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관여했던 많은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고 중앙에서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권고와 더불어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능만을 보유해야 한다. 정보의 형태나 정보의 종류는 지

1) Barbara H. Moore ed. The Entrepreneur in Local Government (Washington D.C.: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1983), p. 26

방행정의 모든 분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보체제의 확립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다.²⁾

II. 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정보 System의 必要性

자치단체의 정보 System은 고도 정보화 추세에 따른 행정의 정보화에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정비를 위한 지역의 정보화와 행정시책으로서의 정보화가 필요하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종합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로 인하여 정책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지고 있다.³⁾ 또한 행정내부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기획부서의 Top-down 결정방식의 지향화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필요성에 의한 자치단체 정보 System은 통계 및 수요조사등의 기초자료로서 입력되어야 하며 자치단체내부에서 지역별로 분류한 후 지구별 개별 data나 인구, 거주등의 계획등의 분석을 통하여 자치단체정책의 입안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분석결과는 여러색의 인쇄 graph나 지도로 나타내게 하고 필요한 모든 부서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III. 정책형성의 System化

지방자치단체가 System化의 기본적인 관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행정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하여 공통된 인식을 갖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행정의 정책형성과정에서 하나의 정책이 검토대상으로 거론되었다하면 그것이 완결되기까지는 반드시 두가지의 특징적인 기능을 갖는 과정이 있게 된다. 그것은 의사결정과정과 정보과정이다. 의사결정과정이란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주체의 주관에 의거하는 가치판단을 넣어 그것을 중핵으로 하는 Process이다. 정책에 대한 문제인식, 새로운 계획안의 정책검토,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예측판단, 계획안의 평가선택등의 여러가지 국면에는 소위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해지고 그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의 가치판단이 전체를 지배하고 그를 중심으로 정책검토가 추진되는 것이 의사결정과정이다. 이에 대해 정보과정이란⁴⁾ 의사결정과정에 등장하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그때마다 필요한 정보수집, 예측, 분석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 정보 needs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부여되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으로 제시된다.

이 두가지 과정은 어떠한 정책결정에도 각각의 역할을 분담함과 더불어 양자간에 정책검토의 여러가지 국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고 feed back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보과정은 거기에서 어떠한 방법수단이 사용되어도 전체로서는 정보의 Net work이 형성되고

2) 이재성 “지방정부의 재정정보체제 연구” 중앙행정논총, 1989, pp 45~47

3) Start Bretchneid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n Empirical Fest”, PAR, 9/10 1990, p 536~538

4) 齊 泰遠三, 自治體經營情報 シスラム の 原理, (1989), p.28

정보 System으로서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비하면 의사결정과정은 정책형성에 참가하는 각종 주체의 가치판단이 그 중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System과 체계하에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 할 수있는 부분은 매우 적다. 거기에는 외면적으로는 소위 혼돈된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 수 있다.

이때문에 정책형성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종래 추진될때 정보과정에 대하여는 각종 Model화 방법과 정보처리 System을 사용한 정보 System이 많이 형성되어 왔는데 한편 그 결과를 적용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는 일종의 Black Box와 같이 생각되어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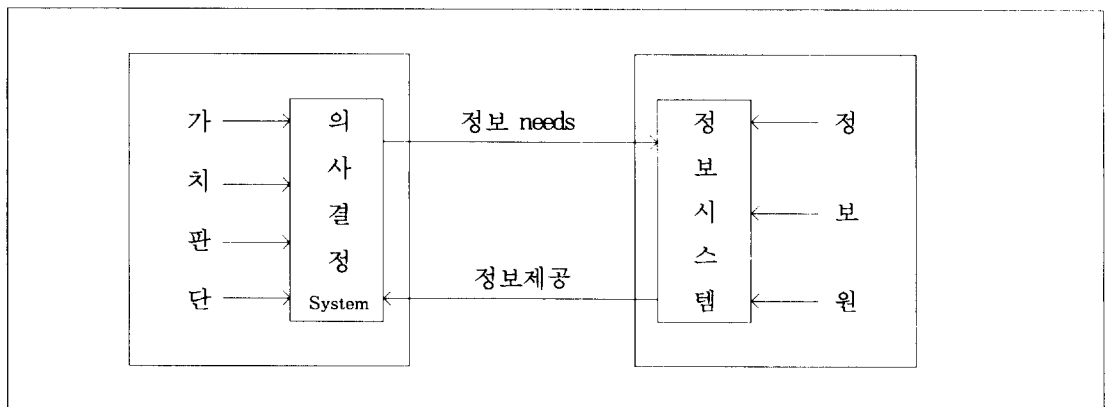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설정된 정보 System은 그 내용이 아무리 정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져도 정치과정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는 보장은 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실제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수고하여 작성한 정책정보라도 정책형성과정에서 유효하게 이용되고 그

역할을 완전하게 완수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일까? 많은 비용을 들여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실제의 정책검토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책상에 쌓여진 채로 있거나 많은 전문분야의 의견을 수집하고 작성한 훌륭한 계획서가 어느날 눈에 띄지 않고 사장되는 등 그 수를 세면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과정의 근거에 있는 의사결정과정까지도 행정경영의 System화의 대상영역에 포함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圖 1]에서 나타나듯이 의사결정의 현실속에서 정보의 needs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정보 System에서 작성되는 정보는 그것이 유효하게 사용되도록 의사결정과정의 환경조건을 정비한 뒤에 제시하고 더욱이 거기에서의 이용결과를 다시 정보 System으로 feedback하는 root가 설정된다. 이렇게 정보 System과 의사결정 System사이에서의 System化的 기본적 구조가 도입되고 그것을 지축으로 System 全體가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圖 1] 정책과정의 System化



1. 정보 System과 의사결정 System의 분담관계

그런데 정책과정의 변수는 정책의 평가선택에 있어 가치판단에 있다. 이 부분은 아무리 System化가 추진되어도 정보 System과 Model의 적용에 의해 대신 할 수 없다.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그것은 의사결정과정의 중핵으로서 남겨진다.

정보 System과 의사결정 System간의 역할 분담을 고려할때 정보 System의 영역에서 정책의 평가선택에 대하여 규모적이고 확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의사결정자에게 강압하는 것은 무엇이라해도 피할 필요가 있다. 정보 System측에서는 각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이 항상 배려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지를 확보해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측에서 보면 그 선택결정에 있어 여러가지 조건을 부여하면서 정보 System의 기능을 이용하고 그 시행착오 과정중에서 자기판단의 적용과 형성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 System의 역할은 이러한 과정을 감안하여 개인의 정책형성의 능력을 높이고 그것을 Support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System화의 목표이다. 개인의 관리와 Control의 수단으로서 보다는 각자의 자기진단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System의 자발적인 활용과 활발한 feedback을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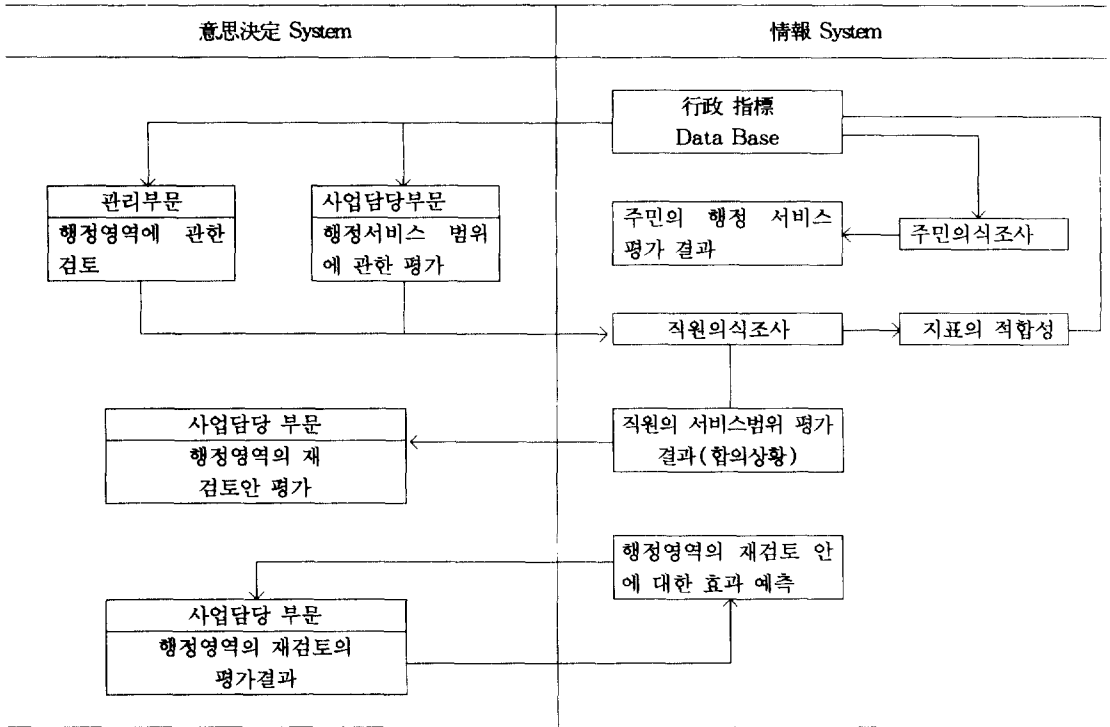
2. 정책형성과정의 System적용

여기에서 구체적인 정책형성의 사례에 따

라 System 전체가 어떻게 구상되는가를 나타내보면 [圖 2]와 [圖 3]과 같다. [圖 2] 및 [圖 3]에는 행정서비스 범위의 재검토책정과 사업효율화의 방침검토라는 행정경영의 중심 과제에 대하여 그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보 System과 의사결정 System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완수하고 System상호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발생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최초의 출발점은 이들 과정에서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행정지표의 작성과 제시이다. 이것은 당연히 정보 System에 있어서 담당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수비범위형성지표, 업무량지표, Cost지표 또는 효율성지표 등 객관적으로 분석된 정보가 각각의 담당부문과 관리부문에 나타난다. 이들의 정보를 받은 직원은 거기에서 여러가지 자극을 받으면서 수비범위에 재검토를 해야 할 영역은 없는지의 여부 또는 사업의 성과, 효율성 비용단가등에 개선해야 할 문제는 없는가 등의 검토와 평가를 추진해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판단결과는 정보 System에서 직원의 의식조사에 의해 수집·파악 된다.

한편 상기한 행정지표의 내용은 주민에 대해서도 공표되고 행정직원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과 서비스의 실태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평가를 촉구하기도 한다. 그 경우에 주민에 의해 직접평가가 가능한 범위는 평소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각각의 needs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생활영역으로 한정 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주민의 평가결과는 의사결정 System으로서는 귀중한 정보원이다. 그것은 행정지표와 더불어 직원의 평가과정으로 보내진다.⁵⁾ 직원의의식조사 data의 이용목적은 System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

[圖 2] 정보 System에 관한 政策形成過程



는 것이다. 제공된 행정지표가 실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지, 실태를 잘 파악하고 그 결과는 지표의 System화의 재평가에 반영된다. 또 다른 이용목적은 위에 설명한 직원 개개인의 평가결과의 분석이다. 여기에서의 분석은 직원의 직위계층간 또는 소속부문간등에서 어떠한 판단평가의 합의를 볼 수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수비범위에 관해서는 Service수준, 수익자격 조건, 요금부담 또는 공급형태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의 여부 또한 업무의 효율화에 관해서는 성과목표의 재검토와 함께 효율성의 개선에 어떠한 방법을 개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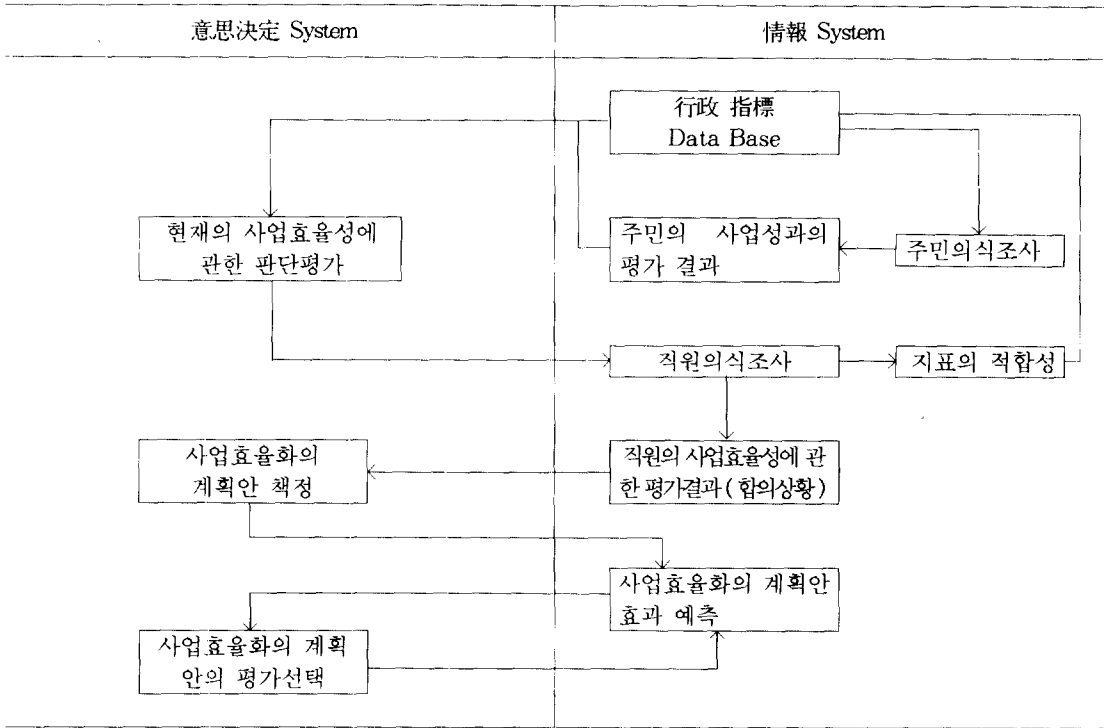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행정조직에 합의가 어느정도 존재하는가가 파악되고 정책으로서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것은 다시 의사결정 System으로 보내진다.⁶⁾

의사결정 System에서의 다음 Step은 구체적인 계획안의 결정이다. 그 책정이란 예를 들어 수익자격 조건으로서 연령제한을 할 것인지? 요금부담체계를 어떻게 개정하여야 하는지? 사업의 위탁화가 필요하면 그 위탁형태의 선택과 이행계획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 상세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문제의 실태에

6) R. H. Sprage & E.D.Carlson, Building Effective Decision Support Sytem, 1982, pp. 120 ~127

5) Moore ibid, pp 27~29

[圖 3] 사업효율성에 관한 政策形成過程



접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무엇인가 결정된 절차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에 거론된 계획안이 초래하는 효과를 어떠한 형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통적으로 생각된다. 그 효과는 당연히 질적·양적측면이 함께 포함된 내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것은 Cost효과이다.

예를 들어 사업 Service의 수비범위의 변경은 그 Service에 대한 주민의 수용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행정에 있어 Service제공의 단가에도 영향이 나타난다. 이들을 종합하면 예산 Cost전체에 미치는 영향효과로서는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안의

평가선택의 Step에 넣는다. 여기에서는 위에 설명한 정보 System에서 파악된 결과에 대하여 의사결정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더해진다. 정보 System과 의사결정 System의 Communication이 가장 빈번하게 교차된다. 예를 들어 주민의 Service수요가 어떻게 變化하는가. 객관적인 지표 data로 나타나는 내용이 개인적인 납득을 얻기까지 수정검토가 반복된다. 또한 주민과 직원의 의식조사 data에 대해서도 그 해석에 있어 개개인의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의사결정자는 더욱 이들 data에 빠져있는 질적인 효과를 보충하고 폭넓게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을 가미해서 정책의 선택결정에 이르게 된다.

IV. 자치단체 정보체계활용의 문제점

자치단체의 정보는 정책결정시 매우 유효한 자료이다. 이러한 정보의 작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정보자료의 활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① 정보가 이용 되어 그 결과로서 정책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을 비롯한 결정권자의 정책방향에 설득력과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담당자나 관계자측의 의견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정책방향의 결론이 선택되었는가를 이해 할 수 없는 경향도 발생한다. 그리고 노력과 시간을 들여 준비 작성된 자료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대개의 경우 쓸모없는 情報가 되고 있다.

② 情報 그 자체의 수집이 어렵고 利用·活用이 곤란하다. 자치단체 기구는 종적관계이기 때문에 개개의 정보는 각 부문의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는 수집하기가 어렵다.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정보는 특별한 성격을 갖는 것이 별로 없으며 어떠한 시점에서 그것을 행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담당자의 노력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情報의 利用 현상은 자치단체의 정보공개가 충분치 않다고 하는 점이나 정보제공은 있어도 효과적인 이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시민이 알기 쉽도록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회나 각종 심의회등을 제외하면 자치단체 행정의 민주화라는 기본적인 목표에서 보아도 중대한 과제가 된다.

③ 情報化가 진행됨에 따라 현행 사회체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행정정보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가 대량으로 수집·축적·제공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사회전체의 정보시스템에서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 System의 신뢰성, 안전성 대책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은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문 제 점	해 결 방 안
프라이버시의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 보호법·정보공개법의 제정 • 사회적 시스템의 공적심사제도 확립 • 정보교육의 충실
정보격차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행정의 주체화 • 지역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 국제협력의 강화 • 시민의 initiative를 전제로 한 정보내용, 정보관리시스템의 정비 • 행정정보에 관한 시민상호간 교류
컴퓨터 사회의 취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위기의 예지·예방기술의 확립 •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법제도 면의 검토 • 시스템의 분산화·이중화 촉진
고용문제·실업문제 배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산업의 진흥 • 사무실·공장입지의 적정 배치 • 지역산업의 육성 • 재교육·연수제도의 충실

V. 자치단체 정책 System의 정보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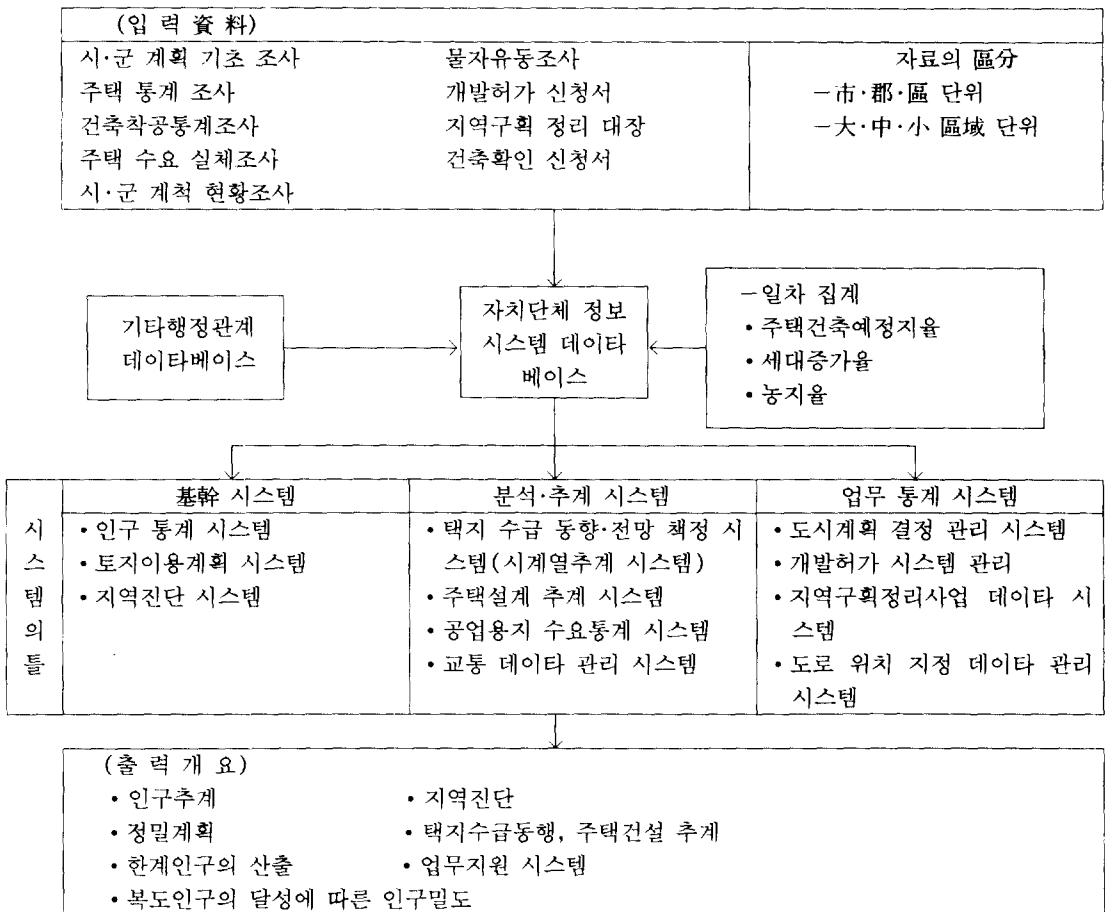
정보화사회라 하여 정보기술의 발전속도는 눈에 띈다. 자치단체행정은 물론 그 와중에

있어 여러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검토되고 구축된 정보 System의 종류는 많은 수에 이르고 그 적용분야는 모든 조직에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이들 정보 System이 없으면 행정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圖 4 참조]. 따라서 자치단체의 정보정책은 Computer와 NetWork의 기술개발을 집중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정보의 개념은 Computer가 개재한 정보에 한정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 이제부터 자치단체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의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 정보정책의 새로운 전개는 추구하는 과제환경의 변화가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과제환경에 적합한 개성적인 정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 지역특성의 과제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행정Service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강도와 긴급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또 어떤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충

[圖 4] 地方自治團體 情報시스템



분히 수집하고 해석해서 이것을 계획책정과 개별의 정책입안에 결부시켜 왔다고 할 수 있는지? 확실히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주민의식조사가 실시되고 또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생활지표 내지 Community Card의 작성이라는 선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⁷⁾

개성적인 자치단체정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의 수집과 작성이 요청되고 있다. 또 홍보정책을 포함한 정보공개정책을 발전시키는 데는 그때 그때 주민의 수요에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시민에게 알기쉬운 형태로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정책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통계정보의 개선

자치단체 중에서도 시·군·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등록·신청과 함께 옛날부터 유입되어온 정보인데 자치단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정보는 극히 적다. 자치단체가 수집하고 있는 통계정보에 대해서도 그 태반은 국가로 부터의 위탁조사로서 실시되고 있는 지정통계등의 정보이고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의 양은 극히 적은 편이다. 따라서 개성적인 자치단체정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지정통계조사등은 Sample수가 적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사회동향의 특수성을 해석하거나 그 범위내에서 지역분포상태를 해석하는데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정통계조사등이 실시될 때 독자적으

로 Sample을 추가하고 조사항목을 부가하고 조사시간을 연장하는 등 자치단체에서 한층 더 사용가치가 높은 통계정보로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⁸⁾

② 토지이용정보의 정비

국가의 지정통계조사에 편승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국가의 통계조사에는 커다란 격차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 시설, 건물, 환경조건이라는 토지이용에 관련된 정보의 정비는 그 속도가 느린편이다. 비교적 치밀하게 구축되어 있는 경제통계에 비하면 몹시 심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 토지이용의 동향은 국가이상으로 자치단체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다. 도시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용지매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도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도 토지의 소유와 이용의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해석이 불가결 할 것이다. 시·군·구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도 건축업무의 시·군·구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시·도의 사무소로 부터 확인신청의 상황에 관하여 정기보고를 받는 등 현실정에서 연구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

③ 생활행동정보의 수집

자치단체의 행정 Service중에는 아동, 청소년, 고령자, 여성, 장애자등 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다. 이들 행정 서비스를 과제환경에 대응해서 효과적으로 실시해 가는 데는 대상집단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사용하는가, 어떠한 행동양식을 선호하고 있는가⁹⁾ 하는 점에 관한 상세

7) 西尾勝, 自治權의 情報政策, 1989. 215~221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정책, 1990, pp 45~48

한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복지시책이 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발전해온 관계로 고령자, 장애자에 관한 수요조사의 영역에서도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실시해온 우수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비하여 아동, 청소년이나 주부의 생활행동, 생활의식의 변화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조사는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일상생활행동의 변화는 체계적·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변동분석, 비교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④ 시설이용상황의 조사분석

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설중에는 구민(시민, 국민)회관, Community Center, 사회복지회관을 위시하여 체육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새마을회관, 부녀회관, 소비자 Center 등 불특정다수인들의 이용에 제공된 것이 많다. 이들시설의 이용상황은 어느정도까지 업무통계에 기록되는 것이 보통이다. 월간·년간의 이용횟수나 방문자수, 회의시 참가자수등은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아무래도 연인원에서 이용자의 고정화경향을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이 보통이다. 더구나 이용자, 방문자, 참가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내역까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매일 이용자, 방문자, 참가자에게 이름, 주소, 성별, 연령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복잡 하더라도 이용자의 협조를 얻어 주기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의 구성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여러 공공시설이 그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종류의 내역정보가 불가결하다.

이런종류의 시설과 그곳에서의 모임에 대하여는 민간에게도 유사한 시설과 모임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시민은 자유로이 선택해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이들 시설의 설치, 운영관리의 정책을 입안할때에는 공사의 경계를 넘은 조사분석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생활환경지표의 작성에는 이미 이러한 발상이 들어있는데 자치단체는 행정활동을 기록한 업무통계의 범위내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公私의 경계를 넘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구조 전체를 분석해야 한다.

⑤ 비용지표의 개발

지역생활환경 지표는 자치단체의 보유정보를 시민에게 알기쉽게 작성해서 알리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해서 개발시키는 것이다. Service수준을 나타내는 각종의 수치에 관해서도 인구 1인당 수치로 계산해서 유사단체간 비교를 시도하고 이것을 계층별로 표시하는 연구이다. 시민편의 정보는 간단명료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의미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사무사업에 필요한 비용,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알기쉬운 형태로 표시한 비용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자치단체가 개성적인 정책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또 자치단체에 없으면 수집하고 작성, 분석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정보에 관하여 소개해 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다. 자치단체가 새로이 수집하고 구성해야 할 정보

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그 필요성, 실현가능성, 유효성, 능률성을 객관적인 data에 비추어서 논증하려고 시도하면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화사회, 더욱이 고도정보화사회의 도래를 알리는 소리가 요란스러운 오늘날 외면상은 정보가 범람하고 정보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중요한 정보는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에 자치단체 공무원이 눈을 뜨지 않는 한 자치단체의 정보정책을 형성하려는 동기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자치단체가 알고 싶은 정보, 알리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가 수신하고 싶은 정보, 발신하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시민이 알고 싶은 정보, 알리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등이 정보체계의 출발점이다.

VI. 결 론

오늘날 지방행정은 정보화의 파도에 크게

휩쓸리고 있다. 지방행정의 업무는 점점 다양화하고 개성화해가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보체계획립의 실현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정보화를 가져다 주는 변혁의 가능성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단체의 정보화 대책은 종래의 수직적인 것을 지향하는 Computer가 아니고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결합에 의한 Net Work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창조, 활용의 쇄신을 지향하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정보 System과 Net Work화가 보유하고 있는 조직간 경쟁의 특성의 의미 또는 정부·자치단체활동등의 질적변환을 조장하는 등 전략적효과가 간신히 인식되고 있다.

매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의 사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자치단체, 지역사회, 주민생활의 모두에게 풍요롭고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주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여진다.